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법칙 9를 읽고-

만 21세, 경기도 성남시 거주, 이재원

피터슨 교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 법칙 9에서 쉬운 길이 아닌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고 한다.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나름대로 고찰해보았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말씀(로고스)으로 혼돈에서 질서를 이끌어낸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 창세기 1장 3~4절-

혼돈과 질서

혼돈은 어둠으로 상징된다. 혼돈은 미지의 영역이고 '탐험이 안 된 땅'이다. 혼돈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과 모든 상황을 말한다. 혼돈은 처음 마주한 사람이고,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분노이며,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이다. 혼돈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도착하는 곳이다. 꿈이 좌절되고,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에 실패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혼돈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질서는 빛으로 상징된다. 질서는 '탐험을 한 땅'이다. 질서는 세상의 움직임이 우리 예상과 기대에 들어맞는 곳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곳이다. 질서는 학문이고 종교이며, 가정이고, 국가이다. 아이들이 뛰노는 따뜻하고 안전한 거실이다. 튼튼한 학교 건물, 하루의 계획, 도서관에 반듯하게 정돈된 책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정중한 태도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가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살얼음판이다.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혼돈 속에서 삶을 끊임없이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낸다. 방에서 물건들이 정신없이 어지럽혀 있으면 혼돈에 빠진 것이다. 방이 엉망이면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무언가 넘어진 것이 있다면 다시 세워야 한다. 기계가 고장이 났으면 다시 수리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인터넷은 혼돈의 바다이다.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진다. 우리는 혼돈의 바다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발표 자료를 만든다. 소리 역시 혼돈 가운데 있다.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수많은 음과 악기가 있다. 이를 아무런 규칙 없이 나열한다면 소음에 불과하다. 하지만 작곡을 하여 조화롭게 배치한다면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진다. 글자도 혼돈 속에 있다. 26개의 알파벳으로 수많은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무작위로 배열하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단어와 문장을 적절히 배치하여 숨겨진 좋은 글을 쓴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의 창작 행위는 혼돈에

서 질서를 창조하는 과정이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삶은 고통이다. 이는 주요 종교의 공통적인 가르침이다. 불교는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직접 가르치고, 유대교는 고통을 견뎌온 조상들의 행적을 기리며 이를 기억한다. 기독교는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의 고통을 십자가를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삶이 고통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인 종교적 교리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노화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생에는 암울한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조던 피터슨 교수에 따르면 '왜 사는가?'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최고의 가치를 목표로 두고 삶의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 의미는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의미는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독제이다. 의미로 인해 삶의 모든 순간이 중요해지고, 모든 순간이 나아질 것이다. 의미는 풍요로운 삶으로 향하는 길이다. 의미는 사랑과 진실만이 가득한 곳, 사랑과 진실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